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

여러 성경에서 조금씩 다른 투로 말하지만 그냥 ‘귀’가 아닌 들을 귀, ‘자들’이 아닌 자 다.

왜일까?

이 책은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.

OTT, 유튜브, SNS...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보가 넘치는 세상.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도 모른 채 다들 떠들고 있다. 말로, 글로, 그림으로, 음악으로, 춤으로.

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?

“날 좀 봐 주세요?”

“내 말 좀 들어 주세요?”

그러는 당신은, 왜 이 책을 쓰냐고?

바로 그 이유다.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떠드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툭! 묻고 싶은 거다.

“당신, 왜 떠들어?”

그 물음을 일으켜 보고자 우리는 이 책을 썼다. ‘리퀴드 모듈’이라 부르기도 하고 ‘감응철학’이라 부르기도 한다, 우리끼리는.

물론 우리끼리 떠들고 놀다 “잘했다”, “수고했다”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끝날 수도 있다.

만약 아니라면?

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 감응이 일어났고 울림이 되어 공명이 되었다면? 그리고 흘렀다면?

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.

울렸느냐?

뭔가 왔느냐?

그걸 묻고 싶었던 거다. 그걸 살피고 싶었던 거다.

이 책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공명하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...

— 저자 일동